

2026년 10월 19일(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 담당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10/24(토)	10/26(월)
박경원2 안수집사	이종덕2 안수집사	이인호1 안수집사	박형중 안수집사	이선 안수집사	송창범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 신 기 목 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25장 다 같 이
기 도 김민수2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9장 2~8절 인 도 자
찬 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벽 찬 양 대
설 교 ...『지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 신 기 목 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0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2~8>

2)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렐에 이르니라

※ 참고구절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0월 19일(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렘 나무 아래 앉아 있던 엘리야처럼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바른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한 곳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목양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제직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